중앙교회 자녀와 함께 하는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03장** ····· **다같이**

1.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2.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 하도다
3.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4.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누가복음 9:51-56 (표준새번역)** ····· **인도자**

51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찼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52 그는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53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54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55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7)꾸짖으셨다.

56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설 교 ····· "무례한 기독교"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1. 자녀를 위한 기도(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2. 부모님을 위한 기도(자녀들)

하나님! 아빠와 엄마가 착한 말과 착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자녀들을 위한 말씀 요약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란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많이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벌을 받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틀렸다고 오히려 혼을 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 보다 제자들에게 혼을 내셨을까요?
예수님은 비록 자신들을 거절한 사람이라고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한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사람들이 거절하고 싫어할 지라도,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례한 기독교”

(누가복음 9:51-56)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짜증스럽게 하는 것은 술주정과 전도라고 답했다. 전도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경제 부흥과 맞물려 교회도 성장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 6개가 한국에 몰려 있음에도 교회가 선한 영향력은커녕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 사회적으로 볼 때 무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가톨릭교회는 불관용적이고 폭력적이었다. 내부의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을 이단과 적그리스도로 몰아 죽였고, 외부의 다른 종교를 대상으로 십자군을 결정하여 정복하고 진멸했다. 개신교도 세속 권력에 힘입어 교조주의, 이단 정죄, 처형, 종교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했다. 누구보다도 관용을 베풀어야 할 기독교가 적대적이고 배타적이고 타자를 마귀화한다. 다른 종교나 신념에 대한 극도의 무례하고 호전적인 태도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렀다. 처음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열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싶다. 그래도 ‘과유불급’이다.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가르친다. ‘무례히 행하는’의 원어는 ‘밉게 행동하다’ ‘격에 벗어난 행동을 하다’ ‘비열한 행동을 하다’ ‘보기 흉한 짓을 하다’라는 뜻이다. ‘무례’하다는 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자신이 좋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상대방을 질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태도다. 무례히 행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십자가)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셨다. 도중에 제자들을 사마리아 마을로 먼저 보내셨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고 막았다. 다혈질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흥분하여 건의한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파멸시켜야 한다는 생각,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한다.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한가!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우회하여 먼 길로 돌아가셨다. 보복을 금지하시고, 편견도 버리라고 하신다. ▶한편 요한은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는 사람을 금지하려 했다. 요한의 아집과 독선과 독점이다. 선한 일을 두고도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로 그냥 두라고 하시면서 포용력을 보여주셨다. ▶기독교가 무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환대를 시행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성도의 교제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맞아주는 것 즉 아브라함처럼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의 필수 자격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었다. 교회사를 보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는가를 알 수 있다. 세상에 악한 일이 많지만, 종교적으로 악한 것이 제일 나쁘다. 물론 기독교는 본질상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종교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타종교에 대해 무례한 태도를 가져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신학적 견해에서 진보와 보수가 다를 수 있지만, 예의가 있어야 한다. ▶기독교의 신념과 일반 시민으로서의 교양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전도할 기회도 얻게 된다. 기독교인은 사회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외부의 대상과는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참여하고 배우고 포용하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투과성을 동시에 겸비해야 한다. 여기에 황금률이 필요하다. 리처드 마우 박사의 〈무례한 기독교〉에는 “시민 교양은 전도의 열매나 정치적 효과를 떠나서 그 자체로 귀중한 가치가 있다. 남을 존중하고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예수님이 보이신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무례함도 없다. 한 마디로 무례한 기독교는 기독교에 무익하다.